

취임사

2024. 7.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존경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족 여러분!

먼저,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수처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수처의 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들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024. 5. 22. 오동운 공수처장님의 취임사
말씀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처장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잘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공수처는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공수처는 법무부·검찰·경찰과 함께 고위공직자부패범죄 일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장님의 보좌기구인 차장으로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공수처 2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공수처 구성원 분들의 모든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친애하는 공수처 가족 여러분!

공수처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공수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반부패 수사기관입니다.

그동안 적은 인력과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어려운 사건을 수행하면서 구성원 여러분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수처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분 일초를 아껴가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부패 없는 사회, 청렴한 사회가 되고, 공수처가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유능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공수처 가족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이러한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간다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공수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